-ETRI 면접 후기-

전체적인 평가: 완전 망했음. /사실 기대하는 게 이상한 것이었는데 실망감 때문에 마음이 아픔. /차라리 서류도 합격하지 않아서 면접을 보지 않는 것이 더 나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는데, 잘못된 부분을 인지하고 고치도록 노력해보자!

기억에 남는 질문

* 질문1. 박사학위논문에서 추정한 잔향시간을 어디에 쓸 것인가? 🡪 이를 활용해서 음성인식 성능을 개선시키고자 한다고 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적용할지에 대해 답변하지 못하였고, 사실상 이를 활용하여 음성인식 성능을 개선한 결과가 없음. <개선방향: 기존의 factor-aware 방식들을 조사하여서 잔향시간을 어떤 방식으로 적용하면 좋을지 구체적으로 정리할 것, 실제로 적용해볼 것, 기존에 잔향시간을 활용한 음성인식 성능 개선 방식에 새로운 잔향시간들을 추가해볼 것. 추가로, 최근에는 잔향환경 음성인식 성능에 어떤 DB나 환경이 사용되는 지 정리할 것. 그리고 추가적인 음향파라미터에 대한 실험들도 어서 진행하자. 별 의미는 없을 것 같다고 답변을 받았다.>
* 질문 2. 게재한 학술지(SPL)의 impact factor는 얼마인지? 게재가 된 이유가 무엇인 것 같은지? 🡪 질문의 요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던 것 같음, 정확한 impact factor가 얼마인지를 묻는 질문이 아니고 상위 논문이라는 것을 어필하라고 도움을 주신 것인데, 그 마저도 붙잡지 못하였음. <개선사항: SPL에 게재한 것은 강점이 될 듯함. 단 한 편이라도 이곳에 썼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게재가 된 이유에 대해서는 revision 과정을 돌이켜보아 심사위원들과의 질의 응답을 리뷰하면서 정리해볼 것>
* 질문 3. 학술대회 논문의 실적이 없는데, 이게 어찌된 영문인가 & 연구의 결과를 어떻게 피드백 하는가? 🡪 실험 결과들이 좋지 못해서 쓰지 못하였다고 답변을 하였음. <개선사항: 연구를 하다 보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그렇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인데, 그 결과를 정리하는 방식으로는 대표적으로 논문이 되겠다.. /일단, ETRI 실적란에 포스터 발표는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면접에서도 이를 다루지 않았었던 것은 큰 패인! 연구과제들 내에서 다루었던 연구 주제들 각각에 대해 어떻게 마무리를 하였는지, 왜 그렇게 마무리를 하였던 것인지 정리가 필요하다. 🡪 이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정리하면서 포트폴리오 형식으로 작성해보자.>